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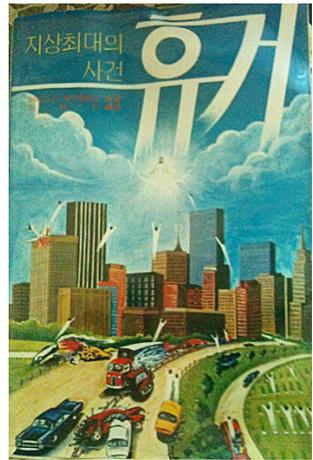
성경에 UFO의 비밀과 해답이 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성경은 오래 전 무군가를 위해서만 주어졌던 책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불변의 진리이자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마귀의 가장 추악한 비밀 UFO, 이 문제의 해답도 성경은 담고 있습니다.

장차 일어날 휴거와 외계인설의 관계

어니스트 앵그리(E. Angley)의 소설 <휴거>를 보면, 비행기 조종사와 자동차 운전자 등이 휴거됨에 따라 일대 혼란이 일어나고 모두가 휴거에 대해 인식할 것으로 묘사되지만 사실 그런 일이 소설 만큼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휴거될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구원받은 참 성도가 생각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휴거의 숫자를 교인의 수로 보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부패되고 변질되어 다양한 신앙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기독교 자체가 붕괴되어 배도할 정도로 뒤틀러 있습니다. 소수의 참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 전 세계적으로 큰 뉴스가 되겠지만 얼마 안 가서 잊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몸 건사하기도 바쁠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세상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휴거가 아니라는 설명이 많겠지요. 교회의 지도자나 열심히 다니던 사람들이 남고, 겉으로는 대단치 않아 보이던 성도들이 사라지면 사람들은 그것이 휴거가 아니라고 믿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해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 실종이라고 제쳐두기에는 너무나 많은 숫자입니다. 땅의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대량 실종이란 가능하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가 진실을 알고 회개하여 고난을 견딜 것이며 대부분은 다른 이유를 찾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것이 외계인 납치설일 것입니다.

외계인의 존재는 많은 이들이 이미 믿고 바라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는 자주 목격되는 UFO

현상 때문이기도 하지만 공상과학적 엔터테인먼트와 맞아 떨어지면서, 유인원의 삽화를 보고 인류의 조상을 원숭이로 믿어버리듯이 외계인도 실제로 있거나 얼마든지 가능한 것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외계인의 정체를 논하기 전에 외계인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이유를 살펴봅시다.

먼저 창조론이 싫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외계인설은 어떤 외계 존재가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전해 주었다는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많은 과학자들과 공상과학 작가들이 주장해온 사실들이 가능한 것이 되면 외계의 존재는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외계 생명체가 있다 해도 그 생명은 여전히 생명에서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진화론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지만 그간의 논란에 대응할 더욱 큰 다른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결과가 되고, 그 뛰어난 외계의 존재들에게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이 있다면 또 다른 가능성이 되기 때문에 창조론에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것입니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진화론자는 외계인의 생명 전달 가능성은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생명 창조 가능성은 혐오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외에 다른 돌파구를 찾는 이들에게 시원한 해방구이자 논리적 해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외계 생명체의 존재 이유입니다.

최근에는 외계가 지구 생명의 근원이며 그들이 멸망해가는 지구의 구세주라는 식의 도전적인 메시지가 많아지는 양상입니다. 할리우드 영화 <노잉>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존재인 외계인들이 멸망하는 지구에서 인간의 씨를 선별해 새로운 행성에 데려다준다는 이야기로 지구에도 이런 방식으로 아담과 이브가 인간의 조상이 되었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을 왕따로 만들기 위해 필요합니다. UFO는 빛으로 가장하고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이 파티마의 기적처럼 마리아의 현현 등으로 오인되게 만듭니다. 그들이 위장한 마리아는 세상의 비밀을 알려주고 미래를 예측하는 등 거룩하고 신비한 존재로 자주 등장합니다. 세상의 종교는 참된 기독교만이 한 진영을 이루고, 나머지 종교는 세상과 모든 것을 포용한 채 반대편에 설 수 있는 구조입니다. 말하자면 모든 종교가 가톨릭과 손을 잡을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조차도 가톨릭의 개방성에 마음을 열고 신비성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기독교도 그들과 손을 잡고 큰 진영을 이룰 것입니다.

가톨릭이 세상의 종교를 통합하는 일에 마리아를 이용할 것이며, 보는 것을 믿고 열광하는 사람들은 UFO 현상 등을 통해 마리아의 탈을 쓴 마귀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믿음의 대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구원을 베풀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창조해서 자신들을 합리화하는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외계인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벌이 있는 지옥은 뜨거운 곳입니다. 물론 마귀들과 하나님을 부인하는 많은 이들이 갈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땅 밑보다 외계에 훨씬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은, 가서는 안 될 곳에 대한 경고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있지도 않은 외계에 솔깃하고 그것을 믿기 원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들은 신분을 감추고 자신들이 사람들을 이끌고 갈 곳인 지옥의 실체를 감추는 것입니다.

휴거는 외계인 납치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실종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까. 미국의 <X-파일> 같은 시리즈는 공공연히 외계인의 존재를 기정사실화하며 납치가 종종 일어나는 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납치해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위협적이거나 나쁜 의도는 없었다는 식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라에리안 무브먼트의 창시자 클로드 라엘이나 외계인 접촉자의 시조로 불리는 조지 아담스키, 스페인 농부 빌리 마이어 등의 구체적인 목격담은 그들이 매우 친절하고 많은 비밀을 알려주는 고등한 존재로 표현되어 거부감을 희석시켜 왔습니다.

뉴에이지 운동 등에서는 타협을 모르는 근본주의 크리스천들을, 아직 의식이 덜 깨인 존재들로 폄하하고, 그들의 꼭 막히고 미개한(?) 의식을 진보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휴거에 대한 대응논리로 외계인 납치설을 들고 나올 것인데, 크리스천들이 외계의 앞선 존재들에게 이끌려 자신들의 고집스럽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개조 받고 돌아온다는 식의 핑계가 그들의 오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납치 사건들을 보아왔던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천들의 사라짐을 ‘휴거’가 아닌 외계인의 ‘납치’로 이해하고, 성경 말씀 같은 것은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휴거되지 못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남은 자들과 함께 이런 현상이 휴거가 아님을 주장하며 자위하고 합리화시킴으로써 더욱 납치설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음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필요를 위해 그 날이 가까워오기까지 납치나 실종에 관한 소문이나 현상은 더욱 많아질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대량실종, 그것은 납치가 아닌 휴거입니다.

구원받은 크리스천이라면 믿지 않는 가족과 친지에게 구원의 도를 전하다가 그래도 듣지 않으면 최후로 해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날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크리스천들이 없다면 그것은 휴거가 분명하니 다른 이유들에 동요하지 말고, 그때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목숨을 지불하고자라도 천국을 소유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UFO는 분명히 존재한다

미확인 비행물체 UFO(Unidentified Flying Object)는 다음 몇 가지 견해에 따라 그 실체가 이해되고 있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판단해보기 바랍니다.

1. 우주 어딘가 외계에서 온 생물체로 우리와 다른 존재다.
2.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다.
3. 정체를 알 수 없다.
4.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먼저 4번은 너무나 많은 증거 때문에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3번은 불가지론입니다. 알기 싫거나 알 필요 없다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1번은 대개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해도 알 수 있는 것은 없으며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지금 2번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왜 UFO는 마귀라고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황당하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보를 0에서 재출발한다는 마음으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아니면 원하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다시 4번, UFO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부터 보겠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 정부는 UFO에 관한 추적 자료를 기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공개된 것들도 있으므로 증거들은 무수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촬영된 것들도 많습니다.

특히 미국의 로스웰사건 같은 경우, 피할 수 없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47년 7월 2일 미국 뉴멕시코 주의 시골 마을 로스웰에 UFO가 추락했으며, 미국 정부가 이 비행접시에서 외계인의 시신을 수습해 비밀리에 처리했다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상관측기구의 추락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발표가 반복되고 오락가락하는 등 정황적으로 가장 신빙성 높은 UFO 사건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터리 서클을 아실 겁니다. 거대한 평야 밑밭에 기하학적 그림들이 그려진 것입니다. 이런 그림들은 정확한 계산으로만 그릴 수 있는 것들인데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그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들 중에는 특별한 컴퓨터 코드가 담긴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밀을 밟



듯이 쓰러뜨려 형태를 만드는 것인데, 밀은 사람이 밟은 것처럼 되어 있지 않고, 꺾어져 있습니다. 꺾어진 부분은 마치 전자레인지에 넣었다 뺀 것처럼 부풀려져 있는데, 이처럼 꺾인 상태로 그대로 자라 수확까지 하게 됩니다. (사진: 왼쪽부터 보통 밀 줄기, 그냥 구부린 것, 미스터리 서클로 생성 당시 부풀어오른 것.)

이들 중에는 사람이 장난으로 줄과 도구를 이용해 밟은 것도 있지만 금방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조각하고 수확할 수 없을 정도로 상하게 됩니다. 또한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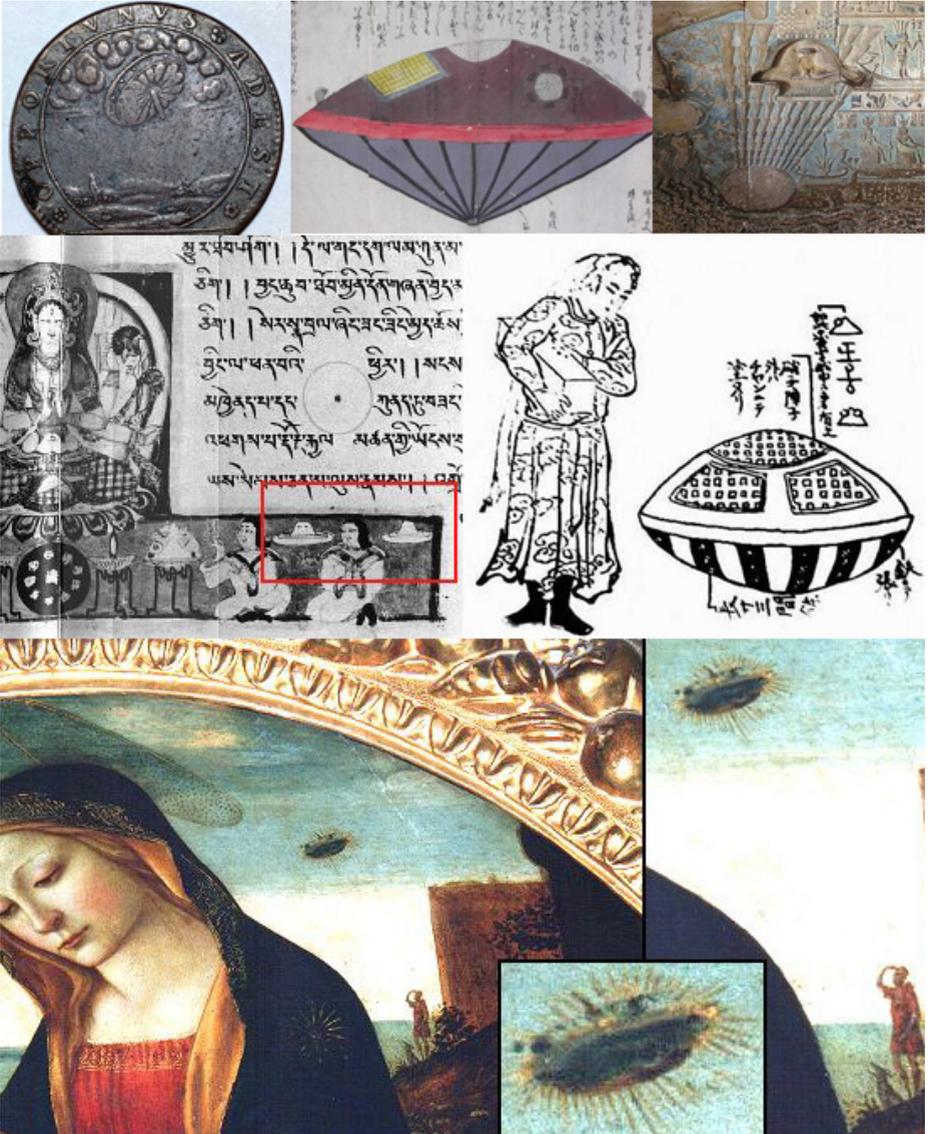
람이 한 것은 그림까지 들어가는 흔적이 남습니다. 그러나 진짜 미스터리 서클은 타이어 자국이나 발자국 등 어떤 흔적도 남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이 제작되던 날 밤에 밀밭 상공을 계속 떠돌던 두 개의 불빛이 촬영되는 등 증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것을 사람들 중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고대 문화와의 연관성

보시다시피 UFO는 고대부터 동서양의 많은 그림들과 기록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대 유적과 오래된 돌판 등에도 그 흔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모양과 시기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오파츠 유물에 속하는 것도 많습니다(오파츠, Oopats란 Out-Of-Place ARTifactS의 약자로 '장소에 어울리지 않는 유물'이라는 의미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다 조각일 수가 있으며 착시라고 할 수 있을까요. UFO는 분명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런 증거들로 인해 3번에 해당하는 불가지론을 선택하여 눈을 감아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결

론이든 내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외계의 존재일까요? 프랭크 드레이크 박사는 외계의 행성들 중 환경과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기준으로 별들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 그 별들의 수가 만 단위에서 수백만 개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나 나타난 것은 없습니





다. 모든 증거들 중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C. Sagan)도 외계에 지구의 정보를 담아 쓰아 올렸지만 이렇다 할 신호를 확인하지 못하고 죽었으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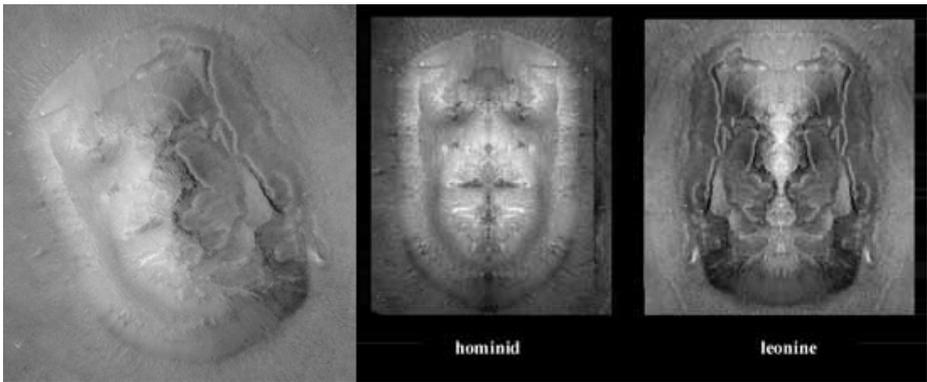
외계 존재에 대한 확신자들은 우주의 역사가 워낙 길고, 우리는 그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을 살기 때문에 발견 못 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라면서도 외계 존재 확인이 초읽기라고 백 년 넘게 외치기만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할리우드 영화에만 나오고, 그래픽으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럴 듯해 보이지만 아무도 그것들이 ‘외계에서 왔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화성이나 달에서도 만날 무언가 나올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아무 증거도 못 내밀지 않습니다. 화성에는 키도니아 유적처럼 많은 구조물과 문명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일까요? 그렇다면 왜 미 항공우주국(NASA, 나사)는 그런 사실들을 발표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를 파헤친 오래 전 나사의 관계자 리처드 호글랜드는 그들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고 하는 내용의 두꺼운 책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이 외계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을 통해 주장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입니다.

“외계 생명체가 지구와 화성에 동시에 생명을 심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구의 문명 발생지라 할 수 있는 이집트의 유적과 화성의 키도니아 유적에서 동일한 특징의 흔적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나사는 이런 사실들을 극도로 공개하기를 꺼리며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 당장 공개하라.”



화성의 구조물 중에 사람 얼굴 흔적을 아실 겁니다. 이것은 절반을 나누면 한쪽은 사람 얼굴이고 한쪽은 사자 등 고양이과 짐승의 흔적입니다. 이는 이집트의 스�핑크스처럼 사람과 고양이과 짐승의 반인반수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는 고양이가 숭배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그 때문에 문명은 외계인이 지구와 화성에 뿌린 것이라는 주장이지요. 그러면서 그는 “미 항공우주국이 매사에 비밀이 많은데, 그들이 사용하는 심벌이나 문장 등을 비롯해 이집트에서 숭배되던 이시스와 호러스(바벨탑을 쌓은 니므롯 아내 세미라미스와 니므롯의 환생으로 여겨지는 담무즈의 다른 이름)에 관한 기괴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므로 화성과 이집트의 유적은 연관성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과연 그것이 외계에서 심은 흔적인가, 아니면 마귀의 화신인 우상 니므롯 일가의 흔적인가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것이 외계의 흔적일까요? 일단 ‘반인반수’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1번, 외계의 존재일 것이라는 추측은 많은 정확이 있는 듯하지만 증거나 단정 지을 만한 명확한 개연성을 지닌 논리는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껏해야 사람도 갈 수 있는 달

과 화성 정도이며 그 이상의 먼 우주에서 무언가 온 것은 아직까지 상상 이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크리스천들은 생명의 씨앗이 우주에서 왔다는 식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외 외계인이라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괴상한 이단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하하며 이르는 주장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시며 질서정연하고 거룩하신 진정한 품격의 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머나먼 우주 북쪽의 셋째 하늘이라고 하지만 그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외계는 아닙니다. 그 외계, 우주라는 곳은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하늘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이제 2번에 대해 설명합니다.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자세히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UFO는 타락한 천사다

먼저 성경에서 가장 미스터리한 구절 중 하나를 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리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백이십 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커지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창 6:2~5)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이 나옵니다. 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입니까?

먼저 왜 이렇게 대비된 표현을 썼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다 인간이라면 왜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왜 딸들은 사람의 딸이라 했을까요? 그래서 나온 해석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며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는 해석입니다. 이런 해석은 어떤 근거로 나온 것일까요? 미안하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지 않을까 주석가들이 생각한 것 이외에 다른 근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단지 다음 구절에 이 해석은 근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셋이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창 4:26)

주의 이름을 부른 것이 경건한 일이라고 본다 해도, 이 문맥은 셋이 아들을 낳을 당시의 정황이 그랬다는 것이지 이것으로 셋의 후손은 모두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할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실제로도 누구의 후손인가에 관계없이 사람들은 악인이거나 의인이었습니다.

다른 답은 없을까요? 좀 더 확실한 해석을 찾는다면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리라 기대하면서 이 구절들이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성경에 (욥 38:7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 포함) 총 11회가 나오는데, 5회는 하나님의 양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을, 1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5회가 천사로, 그중 다음 2회는 ‘타락한 천사’를 의미합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욥 1:6)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욥 2:1)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활용된 예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셋의 후손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고, 매튜 헨리와 마틴 로이드 존스를 비롯한 소수의 학자들은 이것이 천사를 일컫는다고 주장했으며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도 이것이 천사를 뜻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딸들’에 대해서도 성경은 오직 창세기 6장에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모두 ‘어느 지역 사람들의 딸들’이라는 특정한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라는 이 대비된 표현은 욥기와 동일하게 명백히 천사와 사람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한 가지 표현을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표현하는 책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천사가 아니라 루시퍼를 따라 타락한 천사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누구인가?

그렇다면 천사는 어떤 존재일까요? 천사(angel)는 사자(使者), 심부름꾼, 메신저를 뜻합니다. 이들은 창조물이며 천지 창조 이전부터 있었습니다(욥 38:7). 그들은 구원받은 자를 섬기는 일을 하며(히 1:14) 지금은 사람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지만(히 2:9),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게 됩니다(고전 6:3). 그러므로 천사는 우리가 숭배할 대상도 전혀 아닙니다(골 2:18).

그들도 우리처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따라 반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남자밖에 없습니다. 여자로 등장하는 천사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들’입니다. 이들은 남자이면서 아주 잘생긴 자들입니다. 소돔에서 롯을 찾아온 천사들을 동성애자들이 찾았던 일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네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창 19:5)

이처럼 그들은 남자로 보였고,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남자 사람과 비슷한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천사는 크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아기 천사도 성경에는 전혀 없습니다.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백사십사 큐빗 이터라 (계 21:17)

그래서 소돔의 동성애자들도 그들을 내놓으라고 한 것입니다. 만일 그들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금방 사람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었겠지요. 우리가 천사를 만나도 구분하지 못합니다.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히 13:2)

또한 이들은 날개가 없습니다. 날개에 관한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룹과 스랍 등은 날개가 있습니다(사 6:2; 출 25:20). 루시퍼도 천사나 천사장이 아니고, 그룹입니다(겔 28:14, 천사장은 미가엘뿐임).

이들은 숫자가 많고, 큰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한 천사가 죽일 정

도였습니다(왕하 19:35) 이집트의 유월절 제양 때도 모든 장자들을 하룻밤에 죽였습니다. 또한 천사는 만나를 먹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게 하시며 하늘의 곡식을 그들에게 주시매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셨도다. (시 78:24~25)

개역성경은 이 부분의 angels' food를 '힘센 자의 떡'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천사가 만나를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선지 마음대로 천사를 힘센 자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천사는 시공의 제약을 받습니다. 시공을 넘나든다는 것은 무소부재하다는 것과 같으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입니다. 다음 말씀을 보면 다니엘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가 시간을 지체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이십일 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의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단 10:13)

여기서도 다니엘은 그를 처음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단 10:15). 외형이 사람으로 보이는 존재가 천사이기 때문입니다.

왜 거인이 생겨나나?

경건한 셋의 후손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는 이밖에도 더 있습니다. 왜 단순히 사람들끼리 결혼을 했는데 거인들이 태어날까요?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giants, 네피림 = 음역)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들의 딸들이 그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의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창 6:4)

개역성경은 이 '거인들'이라는 말을 히브리어의 소리 '네피림'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뜻이 모호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거인들입니다. 그것도 조금 큰 자들이 아니라 대략 3미터

가 넘는 키의 엄청난 남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도 거인이 있었습니다. 바산 왕 옥은 침대가 4.2m일 정도로 큰 거인이었고, 골리앗도 키가 3.3m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명성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네페림(Nephirim)이라는 말과 마찬가지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거인 족은 영어로 끝이 m으로 끝납니다. 삼숨(Zamzummim, 잠줍뎀), 엠(Emim, 에뎀), 르바(Rephaim, 르바임), 아



낙(Anakims, 아나킴), 수스(Zuzim, 주짐) 등이 모두 거인족이기 때문에 금방 구분이 됩니다.

이런 거인족들이 실제로 존재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거인들은 신화와 전설에 많이 남아 있는 것은 물론, 화석으로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면, 그들이 쓰던 도끼의 크기로 보아 폴리아트 같은 자들에 대한 묘사가 단지 과장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발자국의 크기로 보아 신장을 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유골의 발견은 명백한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스터 섬의 거대 석상들은 보통 사람들이 만들기 어려운 놀라운 크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런 석상들은 제주도의 돌하르방과도 비슷한데, 돌하르방은 외계인들 중 한 형





태인 그레이와 비슷한 눈을 지녔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이 인간 여성을 범하자 돌연변이가 나온 것입니다. 경건한 자와 불경건한 여자가 만난다고 해서 돌연변이가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거인들이 모두 남자였던 이유도 명백합니다. 천사들은 모두 남자였고, 염색체 상 YY입니다. 인간 남성은 XY, 여성은 XX입니다. 그래서 인간끼리는 XY(남), XX(여)가 나오지만 천사와 여성은 항상 XY(남)만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인간이든 누군가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그들은 결혼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떠올리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성경은 늘 명확한 단서를 남깁니다.

그들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때에는 장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천사들(angels which are in heaven)과 같은 나라. (막 12:25)

‘하늘에 있는’ 천사들은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은 신비가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면 알 수 있도록 모든 단서를 주신 것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으로 잡종 거인들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간 여호수아에게 모든 족속을, 아이까지 멸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잔인한 명령이 아닙니다. 씨가 번질 된 자들은 모두 죽어야 메시아의 혈통에 방해가 되지 못합니다. 아이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이 생기기 전에 죽어도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 멸하지 못한 결과로 현재까지 팔레스타인 땅에 남은 분쟁지역이 바로 그런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학자

도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24절에는 이미 말과 당나귀의 잡종인 ‘노새(mule)’가 등장합니다. 그러나 NIV는 당나귀(donkey)로, 심지어 개역성경은 ‘온천’으로 번역했습니다. 노새는 스스로 생기지 않습니다. 사람이 인공적으로 교배하는 것인데, 종이 근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며 이들은 불임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손을 이어갈 수 없으며, 따라서 종이 바뀌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노새가 나오는 것은 이미 동물들의 잡종이 시도되었다는 뜻이고, 사람 사이에도 마귀가 혈통을 자꾸 교란시키려 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자들은 그때도 있었고 이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골리앗은 3천 년 전쯤의 사람이니 당연히 후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천사들은 어둠 밑(타르타로스)에 묶여 있다고 유다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나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낮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유 1:5~7)

낮선 육체를 따라간 천사들,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누구이겠습니까? 천사에게 사람은 낮선 육체가 분명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방식이란 동성애입니다. 소돔의 이름은 어원으로 동성애는 소도미(sodomy), 동성애자는 소도마이트(sodomite)입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소돔과 고모라, 노아의 홍수와 연관된 천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동성애와 관계가 있는 문맥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시라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옛 세상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의 선포자인 여덟째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고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으심으로 정죄하시라 재가 되게 하여 그 뒤에 경건치 아니하게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셨으며 (벧후 2:4~6)

천사는 영이지만 육체가 존재하며 먹고 마시며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외관도 사람과 동일

합니다. 단군신화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신화나 시조 인물을 보면 대개 하늘에서 온 존재가 사람과 결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존재로, 알에서 나온 자가 시조가 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또한 고대의 왕들은 힘이 세고 거인들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악한 천사들의 유전자 교란

예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재림의 때에는 비슷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노아의 날들에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마찬가지로 롯의 날들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되 롯이 소돔에서 나간 바로 그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 오듯 내려 그들을 다 멸하였느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나는 날에도 그와 같으리라. (눅 17:26~30)

어떤 면에서 노아의 날들과 비슷할까요?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성적으로 음란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일들이 사람 간에도 일어나지만 마귀의 시도가 있을 것입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은 씨를 교란시킬 것입니다. 인간복제는 물론이고, 유전자의 전체 지도를 파악했다는 인간이 많은 일들을 꾀하고 있으며, 이미 많은 유전자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DANIEL 2	DANIEL 7	DANIEL 8	DANIEL 11, 12
GOLD		BABYLON	NONE	NONE
SILVER		MEDO-PERSIA	RAM WITH TWO HORNS	FOUR KINGS (Verse 3)
BRASS		GREECE	HE GOAT	MIGHTY KING (Verses 5-10)
IRON		ROME	LITTLE HORN FROM FOUR HORNS	KING OF THE NORTH (Verses 14-20)
IRON AND CLAY		DIVIDED KINGDOMS 1260 YEARS	LITTLE HORN - GREAT	KING OF THE NORTH (Verses 20-35)
STONE CUT OUT WITHOUT MAN'S HANDS		INVESTIGATIVE JUDGMENT	CLEANSING OF HEAVENLY SANCTUARY	TIME OF THE END (Verses 40-45)
STONE FILLS WHOLE EARTH		CHRIST'S KINGDOM	JUDGMENT SEVEN	EXECUTIVE JUDGMENT
			KINGDOM GIVEN TO SAINTS	MICHAEL STANDS UP (Chapter 12:1-8)

다니엘서에는 맨 마지막에 임하는 왕국의 잡종에 관한 예언이 나옵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넷째 왕국은 쇠같이 강하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산산조각 내며 정복하나이다. 이 모든 것을 부수는 쇠같이 그 왕국이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상하게 하리이다. 왕께서 그 두 발과 발가락들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이 나누일 것이로되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 왕국에 쇠의 강함이 있으리이다. 그 두 발의 발가락들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 것 같이 그 왕국도 얼마는 강하되 얼마는 부서질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쇠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단 2:40~43)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란은 분명히 시도 될 것이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교란을 무척 싫어하시기 때문에 짐승과 늙는 수간하는 자들은 무조건 죽이게 하셨습니다. 서로 다른 육체가 결합하는 것을 극도로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스터리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광우병이나 조류독감처럼 원래는 옮겨서는 안 되는 질병들에 사람이 감염되기도 하고 기형이나 장애도 많이 발생합니다. 외신에 보도된 다음 두 사례는 반드시 그런 종류의 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매우 혐오스럽고 무서운 일들의 전조를 보는 느낌입니다. (다음 쪽 사진 참고)

이 정도는 단순 ‘기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현상들입니다. 먼저 양인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는 이 새끼 짐승은 탄생 후 얼마 안 가 사망했다고 하는데, 이를 본 그 지역 수의사의 고백이 인터넷에 뒀습니다.

“나는 머리 둘이거나 다리 다섯 개, 혹은 눈이 하나뿐인 송아지도 보았지만 이것은 내가 본 어떤 짐승보다 무섭다.” (2010, 터키)

또 하나는 마치 사람처럼 생긴 강아지입니다. 방금 태어난 상태인데 언뜻 보기에 사람과 같은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2010, 브라질). 염소의 몸에 사람 머리 같은 것(2009, 짐바브웨), 사람이 낳았는데 다리 부분이 염소 같은 것도 있었습니다(2009, 나이지리아).



고대로부터 켄타우로스(반인반마), 미노타우로스(반인반우), 하피(반인반조), 유니콘(뿔 달린 말)이라든지 반인반수의 설화는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괴물들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빌론에 대한 저주와 그들에 대한 이야기에 반인반수가 나옵니다.

오직 사막의 들짐승들이 거기에 누우며 음울한 창조물들이 그들의 집들에 가득하고 올빼미들이 거기에 거하며 **사티로스**들이 거기서 춤을 추고 (사 13:21)

사티로스는 반인반수의 괴물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이때 바빌론이 동성애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티로스는 장난이 심하고 주색을 밝히는 무리들로서 영어에서 ‘호색한’을 뜻하는 사티릭(Satyrical)이라는 단어는 사티로스에서 파생된 낱말인데, 고대

에 이들의 저급하고 익살스러운 성격을 차용한 사티로스극이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로 보아 반인반수는 단지 상상 속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스가랴 5장에는 UFO를 암시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와 바구니가 나오고 날개가 있는 두 여인, 즉 하피(harpy, 반인반조)가 등장하고 군의 착륙기지를 뜻하는 터(base)가 등장합니다.

그때에 내가 돌아서서 눈을 들어 보니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슌 5:1)



그때에 나와 말하던 천사가 나아가며 내게 이르되, 이제 네 눈을 들어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이 무엇인지 보라, 하기에 내가 이르되, 그것이 무엇이니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앞으로 나아가는 이것은 에바(바구니)니라, 하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두루 그것들의 생김새가 이러하니라, 하더라. 또, 보라, 낱 일 달란트가 들렸는데 이것은 그 에바의 한가운데 앉아 있는 여인이라. 또 그가 이르되, 이것은 사악함이라, 하고 그것을 에바의 한가운데로 던져 놓고 그 낱덩어리는 에바의 아귀 위에 던지더라.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두 여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황새의 날개 같은 날개가 그들에게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땅과 하늘 사이로 들어 올리기에 그때에 내가 나와 말하던 천사에게 이르되, 이들이 에바를 어디로 나르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것을 위해 시날 땅에 집을 지어 주려 하느니라. 그것이 굳게 세워지고 거기서 자기 터(base, 착륙기지) 위에 놓이리라, 하더라. (슌

5:5~11)



현대의 판타지물이나 게임 등에서도 반인반수의 존재는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미녀와 야수> 같은 이야기도 반인반수를 다루고 있고, <판의 미로> 시리즈에도 염소와 사람의 결합체인 괴물이 등장하며, 기독교 사상을 모티프로 했다는 <나니아연대기>에도 반인반마 켄타우로스가 등장합니다.

이런 뒤섞이고 변형되는 것들은 드라마 <시크릿가든>처럼 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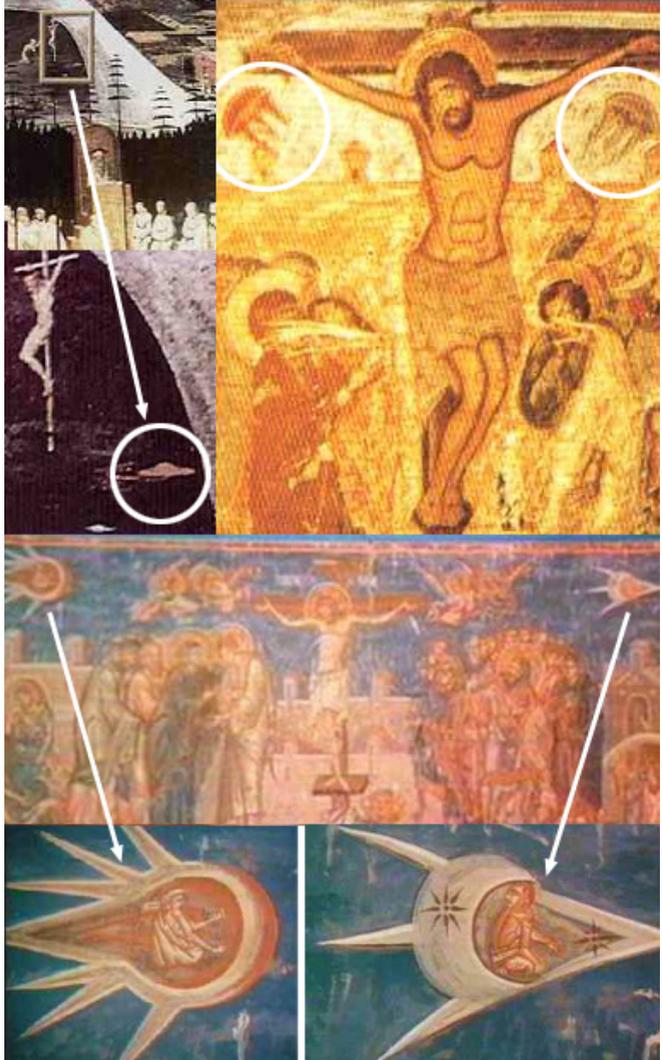
너가 뒤바뀌는 이야기 등으로도 나타나는 등 문화적 혼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문화도 모두 섞는 잡종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잡종인 하이브리드, 다문화, 크로스오버, 퓨전, 종교간 교류 등이 모두 섞어서 개념을 흐릿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사탄 마귀의 끈질긴 음모

우리는 이런 일들이 왜 마귀의 천사들의 소행이라고 판단하는지 길게 살펴보았습니다.

마귀는 오래 전부터 종을 교란시켜 예수님의 오심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자 죽이기 위해 발악을 했으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써 마치 승리를 거두는 듯했지만 부활하심으로 써 그들은 영원히 패배했습니다.

이 흥미로운 수백 년 전의 그림들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사건에 UFO가 등장합니다. 이런 그림들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지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 사람들처럼 UFO의 단순한 존재 흔적이 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첫째 그림은 1460년 우셀로의 그림이라고 합니다. 확대해 보면 예수님을 조롱하는 존재가 비행접시 형태의 물건과 함께 등장합니다. 마치 마귀가 비행접시를 타고 와서 예수님에게 이겼다고 주장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소를 만들어 숭배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피스 신은 원반과 뱀이 그 머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소의 모습은 각종 신화와 그림에서 우상으로 등장합니다.

마귀는 천사가 아니라 그룹입니다. 그는 천사들을 거느리고 반역을 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맡은 존재였습니다.

그때에 내가 보니, 보라, 그룹들의 머리 위에 있던 궁창에 사파이어 돌 같은 것이 그들 너머로 나타났는데 그것은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 같더라. (겔 10:1)

다음은 그룹들의 얼굴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들의 얼굴 모습으로 말하건대 그들 넷이 **사람**의 얼굴과 오른쪽으로 **사자**의 얼굴을 가졌으며 또 왼쪽으로 **소**의 얼굴을 가졌고 또 **독수리**의 얼굴을 가졌더라. (겔 1:10)



그들이 각각 네 얼굴을 가졌는데 첫째 얼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얼굴은 **사람**의 얼굴이며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고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겔 10:14) (사진: 황소 신 아피스)

보는 바와 같이 같은 그룹들을 설명하는 에스겔 1장 10절에는 사람, 사자, 소, 독수리가 나오고, 10장 14절에는 사람, 사자, 독수리,

그리고 그룹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룹은 소의 얼굴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소를 통한 광우병이라든지 소의 의문어린 떼죽음 등도 모두 그냥 넘길 수 없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UFO와 그룹

다음은 ‘두로왕’으로 표현된 마귀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 곧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마노와 벽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네가 창조되던 날에 네 안에서 네 작은북과 네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도다. 네가 창조된 날부터 네가 네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네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도다. (겔 28:13~15)

이런 아름다운 존재였던 루시퍼는 그룹입니다. 그룹은 왕좌를 나르는 존재로, 시편 99장 1절에는 “주께서 통치하시니 백성들은 떨지어다. 그분께서 그룹들 사이에 앉아 계시니 땅은 흔들릴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에는 하나님의 왕좌를 나르는 그룹들이 등장하는데, 에스겔 1장과 10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UFO에 관한 묘사라고 단정 짓는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참고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 북쪽에서 나타난 창조물인 네 그룹들은 사람의 모습을 지녔고, 빛나는 늦 같은 빛을 내며,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곧게 앞으로 나아가며 돌이키지 않습니다. 불타는 숯과 등불 모양 같은 것이 그들 가운데 오르락내리락하고, 그 불에서 번개가 나오며, 그들이 달려갔다 돌아오는 것은 번개가 번쩍이며 나타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창조물들 옆에 각각 한 바퀴가 있는데, 녹주석 색깔에 바퀴 한가운데에 한 바퀴가 또 있고, 그것들의 테에는 사방으로 눈이 가득한데, 창조물들이 갈 때 함께 움직입니다. 서로 이어져 있는 그들의 날개 소리는 큰물들의 소리나 전능자의 음성 같고, 그들이 멈추면 날개를 접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는 궁창이 있고 음성이 나며, 왕좌의 모습이 있고 그 위에 사람의 모양을 닮은 모습이 있는데 무지개와 같은 광채가 퍼지는 주의 영광의 모습을 가진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곧게 나아가고 돌이키지 않는 것, 날개, 바퀴 모양, 불, 번개 등 UFO의 특징들을 두루 갖추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스겔 10장도 읽어보면 왕좌의 모습을 닮은 모양, 바퀴들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시는 것, 바퀴 안의 바퀴 바퀴들에 사방으로 가득한 눈, 앞으로 곧게 나아가는 것 등의 표현이 비슷하게 나오고, 이들이 그발 강가에서 본 바로 그 얼굴이며 그들의 모양과 그들 자체도 그러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UFO를 성경과 연관 지으면서 지구에 생명을 전한 것이 외계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서 크리스천들도 성경과 UFO 현상을 연결하여 설명하는 것에 부담과 거부감을 지닌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현상 중 성경 밖에서 벌어지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와 현상은 성경 안에서 실현되고 성경으로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UFO는 정말 땅속에서 오는가

UFO의 정체가 사실이고 그 장본인이 마귀와 타락한 천사라면, 이들이 과연 지구의 내재적 존재인가 하는 것만이 남습니다. 이것에 대해 늘 우주의 존재로 익숙하다는 이유 때문에 어색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주 외계의 존재란 없습니다. 우주 외계에서 어떤 생명체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우주의 어떤 곳에서 생명이 발생했다고 하면 당신은 진화론자가 됩니다. 지구에서도 물론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생명은 먼지가루에서 저절로 진화한 것이 아니고 어디서 가스가 폭발해 팽창하면서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빅뱅(big bang) 같은 가설은 이미 수십 개의 보완 정정 가설이 나왔으나 어떤 것도 사람들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원시 지구까지 어떻게 생겼다 치더라도 거기서 어떤 유기물도 생명과 관련 있는 물질이나 세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간 과학자들의 실험으로 밝혀냈다는 것들은 모두 허구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며, 원시 세포라는 것은 개념조차 없습니다. 세포는 한 번도 원시적이거나 단순했던 적이 없습니다. 수억 년 전이라고 주장되는 지층에서도 지금과 똑같은 생명체들이 화석으로 발굴된 뿐입니다.

이처럼 불가능한 일은 우주에서도 불가능합니다. 어떤 생명체도 외계에서 신호를 보내온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평생 찾다가 죽은 칼 세이건이 죽은 뒤에도 이름을 남길 만큼 유명하다 해도, 외계로부터 작은 신호 하나 남기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NASA와 과학자들은 계속 변죽만 울리며 희스 입자니, 외계의 극한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니 하며 너절할 다크매터리로 끝내 실체는 없는 주장들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과

학자들이 외계의 비밀을 밝히라고 추궁하지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계의 생명체나 흔적은 전혀 없고, 지구의 내계인들과 화성이나 달에 만든 구조물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화성과 달에는 인공적인 구조물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외계인과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지구인이 만들었을까요? 지구에 그런 것을 만들 기술이 있습니까? 외계의 존재들과 손을 잡았다면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고, 그 존재들이 나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자신들을 외계의 존재라고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습니다. 조지 아담스키, 빌리 마이어, 클로드 라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외계의 존재를 만났다고 고백을 했지만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그들이 누군가 만난 것까지 사실일 수 있지만 그들이 우주 한 구석에서 온 자들인지는 아무도 밝혀주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외계의 존재가 있게 되면 그것은 진화론의 성립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존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구인도 아니라면 내재적 존재들이라는 결론만 남습니다. 증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선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셋째 하늘에서 창조된 마귀가 땅으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네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네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사 14:12)

그는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를 추종한 천사들도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들 중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에 내던지더라**. 용이 막 해산하려고 하는 그 여자 앞에 서서 그녀의 아이가 태어나면 곧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계 12:4)

그래서 욥기에는 마귀가 하나님을 뵈러 왔을 때 이런 부분이 등장합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욥 1:7)

개역성경에는 두루 다니다가 왔다고만 되어 있지만 분명히 walking up and down in it

니다. 땅의 속에서 위 아래로 거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땅의 지배자일 뿐 아니라 땅 속의 지배자이기도 합니다. 모두 그의 거처가 될 수 있습니다. 바닥없는 구덩이에 묶이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in earth) 이루어지이다. (마 6:10)

땅 위에서 뿐 아니라 땅 속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NIV 성경 같은 경우는 on earth 로, 땅 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의 같은 내용에서는 ‘땅에서도...’ 부분을 아예 삭제했습니다. 개역성경도 그와 같습니다.

어쨌든 땅 속의 일들도 정리가 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땅 속에는 지하세계가 있다는 설화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얼마 전 영화화되기도 했던 쥘 베른(J. Berne) 원작의 <지구 속 여행>을 비롯해 많은 책도 발간되었습니다. 지구 속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거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을까요? 궁금증을 지닌 사람들이 땅 속을 탐험하려 했지만 땅을 파고 들어가려는 노력은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지구 속의 존재들

지구는 가로 4만 75km, 세로 4만 8km 정도로 적도 부분이 볼록한 구형입니다. 표면 면적은 약 5억 970만 평방 km(바다 71% : 대륙 29%)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알아낸 것은 지구의 표면에 대한 것뿐, 내부에 관해서는 모두 추정치입니다. 지구 내부의 구조는 암석 → 맨틀 → 외핵 → 내핵 → 마그마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지요. 그래서 뜨겁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한 예로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는 섭씨 70도가 넘는, 온천수 같이 뜨거운 물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물론 땅 속은 뜨거운 용암과 불덩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역은 물론 미국 남서부 지역에는 동굴이 많아 개척 초기에는 많은 이들이 이런 곳을 탐험하다가 죽기도 했습니다. 땅의 지하에는 물이 있고, 그 물들이 다시 거대한 동굴 속 호수를 이루는 곳이 많습니다. 이 규모는 실로 엄청나기 때문에 탐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에서 얼마나 파 내려갈 수 있을까요? 현 인류가 가장 깊이 들어간 것은 아프리카에서 금광을 채석하기 위해 5km까지, 러시아에서는 장비를 이용해 10km까지입니다. 이른바 모홀 계획(Mohole Project)이라고 부르는 시굴작업도 있었는데, 1961년 멕시코 앞

바다 180미터 지점을 파내려간 것으로 가장 획기적인 시도였습니다. 해저에서 지각을 뚫기 시작하여 맨틀의 꼭대기, 즉 암석이 끝나는 지점까지 도달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지점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Mohrovicic Discontinuity)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지진파의 속도가 급격히 변하는 지점으로 1909년 러시아의 과학자 모호로비치치가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험 계획도 많은 문제와 비용 때문에 180미터를 한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계획은 한 해양학자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서 스파게티 면발로 뉴욕 보도를 뚫으려는 것과 같다”고 할 정도로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지구의 지각 두께라든지 내부 온도 등은 자료가 많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한편 지구의 내부 구조는 1930년대 덴마크의 여류 과학자 잉게 레만(I. Lehmann)이 지진파를 이용해 고체, 액체, 기체를 감지하는 P파, 고체를 감지하는 S파를 땅속에 쏘아 내핵이 회전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차갑다는 주장도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 시추되는 석유가 차갑다는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지구의 내부에 대해서 성경은 주로 지옥을 말씀합니다.

땅으로 말하건대 거기서 빵이 나오며 그것은 밑에서 **불같이 솟구치는도다.** (욥기 28:5)

지옥(hell)은 원래 지하세계 전체를 일컫는 말로, 뜨겁지 않은 부분인 낙원과 뜨거운 형벌의 장소 지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낙원은 구약시대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안식처 ‘아브라함의 품’입니다.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왔던 기록도 있습니다(삼상 28:14).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이 갇힌 자들을 이끌고 셋째 하늘로 가셨으므로(엡 4:9~10) 지금은 비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지금의 성도들은 죽으면 셋째 하늘로 갑니다.

예수님도 죽으시고 땅 속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회개한 범죄자에게 “오늘밤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눅 23:43)” 하셨고, 요나의 표적(마 16:4) 외에는 아무 표적도 주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요나는 고래의 배 속에서 <피노키오>의 제페토 할아버지처럼 살다 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었다 살아난 것입니다.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마 12:40)

요나는 죽었던 것이고, 예수님도 죽으셨던 것입니다. 분명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고 하

셨습니다.

뜨거운 부분인 지옥은 점점 확장된다고 했습니다(사 5:14). 실명이 등장하는 실제 사례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보면 지옥과 낙원은 서로 보이고 대화도 할 수 있었지만 건너갈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지옥의 지배자는 마귀입니다. 그들은 이곳에서 땅을 오가는 것입니다.

땅에는 이들이 오가는 많은 출구가 있습니다. ‘버뮤다마의 삼각지대’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배와 사람이 실종되고 기체가 말을 듣지 않으며 큰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행방이 묘연해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마귀의 바다라고 불리는 지역 등 북위 20~30도 부근에서는 많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두 지역에서는 나침반이 항상 정북 방향만을 가리키고 실종사건이 있을 때마다 UFO가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극지방도 많은 단서를 지니고 있기도 합니다. 거대한 빙산이 모두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이라는 것, 탐험가들이 따뜻한 바다를 향해했던 증언, 추운 지방에서 살 수 없는 곤충과 생물들이 발견되는 점, 지구를 찍은 사진에 극지방이 비어 있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 안에 어떤 존재들이 있다는 성경의 힌트는 지구공동설 등의 이야기와 구분되어야 합니다. 헬리 혜성을 발견한 과학자 에드먼드 헬리(Ed. Halley) 등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온 지구 속 문명설은 황당하고 허무맹랑한 것입니다. 탐험가 난센의 이야기나 미국 펜타곤의 극비문서로 분류되어왔다는 리처드 버드 제독의 북극 항해 중 내부 문명을 만났다는 보고서도 믿기 어렵습니다. 지구 중심에는 내부 태양이 있고, 지구 안쪽에 사는 그들은 지구인들보다 엄청나게 앞선 문명을 지녔으며 그곳의 지도자를 만나 이제 안팎의 세계가 교류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지만 북극 표면까지 외에는 사진 한 장도 없고 증언은 부실하기만 합니다. 그가 10년 간 미국 정부의 요청으로 침묵을 지키다가 1956년 다시 북극을 탐험하게 되지만 1957년에는 죽고 맙니다.

이런 지구 속 문명설은 오히려 뉴에이지의 시초에 해당하는 신지학회를 설립한 러시아의 헬

레나 블라바츠키(H. P. Blavatsky, 사진)나 알레이스터 크로울리(A. Crowley) 등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이 내부의 문명인 아갈타 삼발라 왕국은 블라바츠키가 인도의 악령에 의해 받은 계시 등을 통해 쓴 <비밀교의>라는 책을 통해 주장한 나라이며 온 세상의 종교와 고대 설화에 나타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설화에는 반인반수들이 매우 많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그런 설화들은 대체적으로 지구 속에 문명이 있고, 이 문명이 훨씬 앞선 것으로 지구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와 석가모니 등 이른바 고등종교의 메신저들을 보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물론 외계 문명도 동시에 인정하고 있는데,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모든 사이비 종교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일원론, 즉 모든 것은 결국 하나이며 신도 인간도 모두 하나이고, 우리도 어딘가에서 흘러와서 더 나은 존재로 태어나는 그런 과정에 있다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도 하나의 통로로써 존재하는 것이지 유일한 구원의 길이거나 유일한 참 신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이지요.

이런 주장들이 모두 하나로 연결되는 것으로 보아 마귀의 음모는 자신들이 오는 곳을 숨기며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과학과 이런 해괴한 주장들을 잘 보면 이 땅에서 밝혀지는 과학적 사실에 거의 발맞춰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이 모든 것을 미리 밝혀놓고 있으며 마귀는 그들과 결탁한 세상의 종교인들과 흑마술인, 사탄 숭배자 등과 연합해 끝없이 새로운 거짓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성경만 아니면 무엇이든 걸려들어 넘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안에 있으며 다른 모든 종교와 달리 참된 하나님이 아니면 모두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며 모든 신들의 신이며 유일하신 전능자이십니다.

세상의 UFO 논란은 정답이 빠진 OX 문제다

마귀의 목적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크리스천들까지 미혹하여 혼란에 빠뜨립니다. 모든 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질 것이지만 그 혼란 속에 많은 이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잃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잘못된 지식 속에서 영통한 것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무서운 음모가 우리의 가족과 소중한 이들의 생각을 파괴하지 않도록 깨어 경고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의 끝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벧전 4:7)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벧전 5:8)

노아의 때와 같이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은 먼 미래의 일이거나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며 땅에서의 축복만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마귀의 천사인 그들이 노아의 때 행했던 것과 같은 유전자의 조작에 의한 세상의 타락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재적 존재임에도 외계에서 온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 드러나지 않게 마음껏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행세를 하며 생명의 창조자가 되기도 하고, 예수님처럼 인류의 구원자를 자처하기도 하며, 성령님처럼 사람들의 마음에 파고들어 자신들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가장한다 하여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고후 11:13~15)

그런데도 일부 교계에서는 외계인이란 존재하지 않는 속임수라고 막연히 가르치기도 하고, 세계의 미스터리도 조작이나 과장이라며 외계인의 존재 자체도 그저 무책임하게 일축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다 보니 외계인에 대한 진실은 모두 묻혀버리고,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만 논의되고, 성도들은 그들에 대해 '외계의 존재냐, 상상 속 존재냐' 하는, 정답이 빠진 OX 문제 속에서 헤매고 있는 꼴이 된 것입니다. 바로 마귀의 전략이 성공한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을 알아봐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없는 존재이거나 상상 속의 존재로 생각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모든 것을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귀 있는 사람이면 알 수 있도록 기록해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지지하는 UFO의 비밀도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출몰한 이 비행체가 외계에서 올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증거도 없다면 이 땅에서 찾아야 할 것이며 그들이 마귀의 천사들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러운 일을 꾸며서 마지막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발악에 거의 모든 것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던져진 우리 이웃들을 구원하고, 크리스천에게는 바른 지식을 알려야 할 때입니다.

〈천사와 UFO 바로 알기(그리스도 예수안에)〉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함.

글 : 김재욱 www.woogy68.blog.me

www.KeepBible.com